

## 韓國道教文化學會 『道教文化研究』 論文目録訳稿

佐藤厚

本稿は韓国の道教文化研究誌『道教文化研究』の32号(2010年)から55号(2021年)までの目録を翻訳したものである。配列は、1つの論文につき、韓国語原文、日本語訳の順に並べ、内容は著者名、論文名、掲載頁となっている。

『道教文化研究』は、1986年に設立された韓國道教思想研究會(1996年に韓國道教文化學會に改称)の學會誌として誕生した。韓國の道家・道教分野で最も古く、唯一の専門學術誌で、年2回刊行している。『道教文化研究』に収録される論文が扱う學術的範圍は、人文學の道家・道教思想および宗教文化を中心とし、道教文化と密接な關連性を持つ自然哲學をはじめとする傳統時代の醫學および科學思想分野を包括している。分野の多様性によって研究の視角も哲學・宗教學・史學・文學・美學、人類學・民俗學・社會學・心理學などの人文社會學的方法論だけでなく、傳統醫學と科學知に對する自然科學的探求方法論まで幅広いスペクトルを持つという特徴がある。

韓國道教文化學會は、『道教文化研究』の高い學術的水準を維持し、創意的な研究を増進させるため、國內外の様々な學術大會を開催し、發表論文の投稿を奨励してきた。そのため多様な學術研究機關および關連學會との連携を通じ學際間研究を推進している。

(韓國道教文化學會ホームページ <http://koreantaosm.jams.or.kr> より)

### ■ 32号(2010年4月)

・ 김성환, 한국 고대 仙敎의 '빛' 의 상징에 관한 연구 (下) : '밝' 의 신화와 서사를 중심으로 ,9-34

(김·송판 「韓國古代仙敎의 「빛 (光)」의象徵に關する研究 (下) : 「밝 (明)」의 신話と敍事を中心に」 9-34)

・ 김경수, 노자 생명 사상의 현대적 의미 ,35-62

(김·ギョンス 「老子の生命思想の現代的意味」 35-62)

・ 임태현, 道德與生命 : 道家生命思想的理論觀念及其形態 ,63-94

(임·테ヒョン 「道德と生命 : 道家生命思想の理論觀念およびその形態」 63-94)

・ 윤지원, 『淮南子』 與道家 ,95-117

(윤·지웬 「『淮南子』 と道家」 95-117)

・ 신진식, 竹簡本『文字』 와 通行本『文字』 의 비교 연구 ,119-142

- (シン・ジンシク「竹簡本『文字』と通行本『文字』の比較研究」119-142)
- 이상옥, 하이데거의 철학 방법으로 해석한 도가 철학사상의 존재: 노자, 장자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143-166
  - (イ・サンオク「ハイデガーの哲學方法により解釋した道家哲學思想の存在: 老子、莊子と王夫之を中心に」143-166)
  - 정우진, 養生과 한의학: 『黃帝內經』의 순환론을 중심으로, 167-194
  - (チョン・ウジン「養生と漢方醫學: 『黃帝內經』の循環論を中心に」167-194)
  - 이봉호, 渤海人 李光玄의 鍊丹理論: 『周易參同契』연단론의 전개, 195-217
  - (イ・ボンホ「渤海人李光玄の鍊丹理論: 『周易參同契』鍊丹論の展開」195-217)
  - 柳江夏, 醫神 保生大帝에 대한 한 연구: 保生大帝의 치료로 본 '治癒'와 '건강한 삶', 219-247
  - (ユ・ガンハ「醫神保生大帝に関する一研究: 保生大帝の治療から見た「治癒」と「健康な生」」219-247)

■ 33号 (2010年11月)

- 김낙필, 도교수행론에서의 심과 기, 9-31
- (キム・ナクピル「道教修行論における心と気」9-31)
- 김탁, 백봉교단 (白峯教團)의 실체와 종교사적 의의, 33-63
- (キム・タク「白峯教團の實體と宗教史的意義」33-63)
- 이근철, 『三一神誥』에 나타난 韓國 仙道の 修行法, 65-94
- (イ・겐철「『三一神誥』に現れた韓國仙道の修行法」65-94)
- 曹英淑, 『東醫寶鑑』宇宙本體論에 관한 研究, 95-135
- (チョ・ヨン숙「『東醫寶鑑』の宇宙本體論に関する研究」95-135)
- 이대승, 保晩齋 徐命膺의 『參同攷』 研究: 『周易參同契』의 先天學的 解釋, 137-165
- (イ・데스「保晩齋 徐命膺の『參同攷』研究: 『周易參同契』の先天學的解釋」137-165)
- 이상옥, 고대 중국 미학의 인식론 시론: 도가의 심미 이론의 역사발전과정을 중심으로, 167-208
- (イ・サンオク「古代中國美學の認識論試論: 道家の審美理論の歴史發展過程を中心に」167-208)
- 김윤경, 하곡학파의 『老子』 독법: '善惡論'을 중심으로, 209-235
- (キム・윤경「霞谷學派の『老子』讀法: 「善惡論」を中心に」209-235)
- 韓京德, 莊子思想中對「道」之認知問題, 237-261

- (한·ギョンドク「莊子思想中の「道」についての認知問題」237-261)
- 이진용, 嵇康의 윤리도덕에 대한 이해, 263-287
- (イ·ジンヨン「嵇康の倫理道徳に對する理解」263-287)
- 임태현, “巫史”與“古之道術”: 道家學派的思想淵源, 289-317
- (イム·테ヒョン「"巫史"と"古之道術": 道家學派の思想的淵源」289~317)
- 정우진, 馬王堆 발굴 양생서, 『十問』 譯註, 319~375
- (チョン·우진「馬王堆發掘養生書、『十問』 譯註」319-375)
- 尹武學, “半部老子”, 蘭喜井의 『老子解讀』 을 읽고, 375-378
- (윤·ムhak「"半部老子", 蘭喜井의 『老子解讀』 を讀んで」375-378)

■ 34号 (2011年4月)

- 김성환, 최치원 ‘國有玄妙之道’ 설의 재해석: ‘한국 고대 신선사상의 지속과 변용’ 의 시각에서, 9-38
- (킴·송판「崔致遠「國有玄妙之道」說의再解釋: 「韓國古代神仙思想의持續と變容」의視角から」9-38)
- 임채우, 한국선도의 기원과 근거 문제, 39-66
- (이무·츄우「韓國仙道의起源と根據問題」39-66)
- 김용휘, 韓國仙道와 新宗教의 修煉, 67-94
- (킴·윤피「韓國仙道と新宗教의修煉」67-94)
- 최오목, 老子 無爲思想의 基底: 노자의 聖人と 生命을 중심으로, 95-120
- (츄·오목「老子無爲思想의基底: 老子의聖人と生命을中心に」95-120)
- 하유진, 成玄英과 李忠翊의 유무관 비교, 121-142
- (하·유진「成玄英と李忠翊의有無觀比較」121-142)
- 이진경, 장자의 인식론에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 134-178
- (이·진경「장자의인식론에서상대주의와보편주의의문제」134-178)
- (イ·ジンギョン「莊子の認識論における相對主義と普遍主義の問題」134-178)
- 김재성, 命理體質醫學에 관한 연구: 『黃帝內經』 체질론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179-218
- (킴·제성「命理體質醫學に關する研究: 『黃帝內經』 の體質論との相關性を中心に」179-218)
- 조영숙, 『東醫寶鑑』 身形論에 관한 연구: 先·後天의 精·氣·神을 중심으로, 219-260
- (조·영숙「『東醫寶鑑』 身形論に關する研究: 先·後天の精·氣·神を中心に」219-260)
- 이대승, 서명응의 선천학적 수양론 형성 연구, 261-288

- (이·데스 「徐命膺の先天學的修養論形成研究」 261-288)
- 이상옥, 하이데거와 진리의 중국적 방법, 289-322
- (이·산오쿠 「ハイデガーと眞理の中國的方法」 289-322)
- 이연희, 낮설음에 대한 유혹: 지괴의 타자성, 323-342
- (이·욘히 「見知らぬことへの誘惑: 志怪の他者性」 323-342)
- 윤찬원, 功過格의 道教 윤리관 연구, 343-375
- (윤·찬웬 「功過格の道教倫理觀研究」 343-375)

■ 35号 (2011年11月)

- 김낙필, 내단사상에서의 덕행 실천의 문제, 9-32
- (킴·낙필 「内丹思想における徳行實踐の問題」 9-32)
- 장광보, 葉法善의 内丹養生思想及在 内丹道教史中的 歷史地位, 33-46
- (찬·광보 「葉法善의 内丹養生思想および内丹道教史における歷史的位置」 33-46)
- 조한석, 宋代 이후 『莊子』 「養生主」 篇 ‘爲善無近名爲惡無近刑’ 에 대한 유학적 해석의 제문제, 47-78
- (조·한석 「宋代以降の『莊子』 「養生主」 篇 「爲善無近名、爲惡無近刑」 に対する儒學的解釋の諸問題」 47-78)
- 김경아, 唐代仙道類傳奇의 환상성, 79-100
- (킴·경아 「唐代仙道類傳奇의 幻想性」 79-100)
- 과국룡, 对性命双修思想的现代思考, 101-118
- (과·국룡 「性命双修思想についての現代的思考」 101-118)
- 안동준, 생태여성주의와 道교, 119-142
- (안·동준 「生態女性主義と道教」 119-142)
- 정선경, 고전의 현대적 변용: 영화 「전우치」 의 공간 읽기, 143-169
- (정·선경 「古典의 現代的變容: 映畫 「田禹治」 의 空間讀み」 143-169)
- 손형우, 개방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덕경道德經』 과 미디어아트 (Media Art), 171-200
- (손·형우 「開放性의 觀點から見た『道德經』とメディアアート (Media Art)」 171-200)
- 이상옥, 도가의 철학적 소고: 니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238
- (이·산오쿠 「道家의 哲學性小考: ニーチェとの比較を中心に」 201-238)
- 정창현, 산림치유에 대한 도가양생방면의 고찰, 239-261
- (정·창현 「山林治癒に對する道家養生方面の考察」 239-261)

■ 36号 (2012年4月)

- 이광세, 현대에 당면한 우리나라 철학의 문제와 과제, 9-39  
 イ・グアンセ「現代に當面するわが國の哲學の問題と課題」9-39
- 김시천, 河上公의 氣와 王弼의 道: 『노자』에 대한 하상공과 왕필의 주석 비교 (1), 41-68  
 (キム・シチョン「河上公の氣と王弼の道: 『老子』に對する河上公と王弼の注釋比較 (1)」41-68)
- 나우권, 成玄英 『老子義疏』의 道論: 般若學의 선택적 수용을 통한 도가류의 재창조를 중심으로, 70-95  
 (ナ・ウグオン「成玄英『老子義疏』の道論: 般若學の選擇的受容を通じた道家流の再創造を中心に」70-95)
- 이봉호, '老莊'에서 아기 (赤子) 메타포 (metaphor): 온전한 삶 (全生)을 살기 위한 방법, 97-123  
 (イ・ボンホ「『老莊』における赤子のメタファー: 完全な人生 (全生) を生きるための方法」97-123)
- 이권, 孫子の 전쟁관에 대한 철학적 고찰: 自然과 勢를 중심으로, 125-155  
 (イ・グオン「孫子の戦争觀に對する哲學的考察: 自然と勢を中心に」125-155)
- 양순자, 중국 고대의 勢 개념: 『孫子兵法』, 『慎子逸文』, 『韓非子』를 중심으로, 158-184  
 (ヤン・スンジャ「中國古代の勢概念: 『孫子兵法』、『慎子逸文』、『韓非子』を中心に」158-184)
- 신진식, 道敎生態思想的現代意義, 185-198  
 (シン・진식「道敎生態思想の現代的意義」185-198)
- 장선아, 石濤의 '一畫' 과 노자의 '道' 비교분석, 199-226  
 (チャン・ソナ「石濤の「一畫」と老子の「道」比較分析」199-226)
- 김도영, 朝鮮 《李仙圖》에 나타난 작가의 심미의식과 시대적 의의, 227-263  
 (キム・ドヨン「朝鮮『李仙圖』に記された作家の審美意識と時代的意義」227-263)
- 정우진, 양생으로서의 방중에 관한 연구, 265-295  
 (チョン・우진「養生としての房中に關する研究」265-295)
- 이근철, 『三一神話』의 '天'에 대한 철학적 고찰, 298-322  
 (イ・겐철「『三一神話』の「天」に對する哲學的考察」298-322)
- 고영근, 『道德經』의 태극권 拳理와 養生적 가치, 323-342  
 (コ・영근「『道德經』の太極拳の拳理と養生的価値」323-342)
- 周珊珊, 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评孔令宏 《道教新探》, 341-343  
 (周珊珊「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孔令宏『道教新探』を評す」341-343)

■ 37号 (2012年 11月)

- 정경희, 2세기 후반~3세기 전반 신라의 仙道와 '勿品波珍浪 (勿稽子)'; 9-45  
(チョン・ギョンヒ「2世紀後半~3世紀前半の新羅の仙道と「勿品波珍浪(勿稽子)」」9-45)
- 안동준, 최치원의 가야보인법과 현묘지도, 47-73  
(안・돈쥬ン「崔致遠의伽倻步引法と玄妙之道」47-73)
- 이근철, 大倣敎의 神觀에 관한 철학적 연구, 75-106  
(イ・グンチョル「大倣敎の神觀に関する哲學的研究」75-106)
- 김시천, 정신 (精神) 과 유희 (遊戯): 『장자』 (莊子) 의 '유 (遊)' 와 삶 의 복원, 107-137  
(キム・シチョン「精神と遊戯:『莊子』の遊と生の復元」107-137)
- 이상옥, 현대 미학의 이론에서 본 도가 미학: 노자와 장자의 미학 본체론을 중심으로, 109-164  
(イ・サンオク「現代美學の理論から見た道家美學:老子と莊子の美學本體論を中心に」109-164)
- 정재서, 道敎의 샤머니즘 기원설에 대한 재검토, 165-183  
(チョン・ジェソ「道敎のシャーマニズム起源説に對する再檢討」165-183)
- 서대원, 漢初 '與民休息' 小考: 黃老學 性格 規定의 일환으로, 185-206  
(ソ・デウォン「漢初 '與民休息' 小考: 黃老學の性格規定の一環として」185-206)
- 정우진, 煉丹術의 기초적 연구: 煉丹術의 범위, 성립시기,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207-238  
(チョン・우진「煉丹術の基礎的研究: 煉丹術の範圍、成立時期、成立要件に関する檢討」207-238)
- 최수빈, 도교의 생사관 (生死觀): 전진교 (全眞敎) 문헌을 중심으로, 239-284  
(チェ・스빈「道敎の生死觀: 全眞敎文獻を中心に」239-284)
- 김낙필, 백옥섬 (白玉蟾) 의 도심불이론 (道心不二論), 285-306  
(キム・낙필「白玉蟾の道心不二論」285-306)
- 윤찬원, 道敎勸善書 『陰騭文』 에 나타난 윤리사상 연구, 307-337  
(윤・찬원「道敎勸善書『陰騭文』に現れた倫理思想研究」307-337)
- 조민환, 徐上瀛 『谿山琴況』 의 音樂美學的研究: 大音希聲思惟를 중심으로, 339-365  
(조・민환「徐上瀛『谿山琴況』の音樂美學的研究: 大音希聲思惟

を中心に」 339-365)

· 강민경, 한국 인어 서사의 전승 양상과 그 의미 고찰, 367-390

(カン・ミンギョン 「韓國の人魚叙事の傳承様相とその意味の考察」 367-390)

■ 38号 (2013年5月)

· 김현수, 莊子哲學에서 氣 범주의 위상에 관한 고찰, 9-34

(キム・ヒョン스 「莊子哲學における氣の範疇の位相に関する考察」 9-34)

· 손형우, 개방성開放性' 과 『도덕경道德經』의 '곡신불사谷神不死', 43-68

(ソン・ヒョン우 「『開放性』と『道德經』の「谷神不死」」 43-68)

· 조영숙, 『老子想爾注』의 精氣神論과 成神의 수양에 대한 고찰, 69-92

(조·윤스쿠 「『老子想爾注』の精氣神論と成神の修養に對する考察」 69-92)

· 윤찬원, 전통 도교윤리는 결과론적인 것인가, 의무론적인 것인가?, 93-137

(윤·찬원 「傳統道教倫理は結果論的なものか、義務論的なものか?」 93-137)

· 이대승, 先天 개념의 형성 · 발전과 의미, 139-170

(이·데스 「先天概念の形成・發展と意味」 139-170)

· 이봉호, 서유구 『보양지』 속의 도인과 안마 : 치료와 예방으로서 도인술, 172-205

(이·봉호 「徐有榘『葆養志』中の導引と按摩 : 治療と予防としての導引術」 172-205)

· 김성환, 曙宇 全秉薰의 생애와 저술에 대한 종합적 연구 (I) : 국내 거주기 (1857~1907) 의 활동과 저술, 207-238

(김·성환 「曙宇 全秉薰の生涯と著述に對する總合的研究 (I) : 國內居住期 (1857~1907) の活動と著述」 207-238)

· 장현주, 송대 여동빈 신앙의 유행 : 문학과 도상을 중심으로, 239-260

(장·현주 「宋代呂洞賓信仰の流行 : 文學と圖像を中心に」 239-260)

· 민영현, 道敎의 지평에서 본 '命理의 學과 術', 261-289

(민·영현 「道敎の地平から見た「命理の學と術」」 261-289)

· 김시천, 디지털 시대와 도술 (道術) : 21 세기를 위한 도교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길, 291-312

(김·시천 「デジタル時代と道術 : 21世紀のための道敎的パラダイムの新たな道」 291-312)

· 신진식, 媽祖信仰與道 · 佛關係研究, 313-332

(シン・ジンシク 「媽祖信仰と道佛關係の研究」 313-332)

• 강경구, 『陰符經』의 著者と 板本の 문제, 333-353

(カン・ギョン그 「『陰符經』의 著者と 版本의 問題」 333-353)

■ 39号 (2013年 11月)

• 박남식, 寒齋 李穆의 『虛室生白賦』 연구, 9-35

(박·남식 「寒齋 李穆의 『虛室生白賦』 연구」 9-35)

• 전상모, 象村 申欽 書畫評論의 ‘玄’ 美學的 志向性에 관한 고찰, 37-62

(쵸ン·산모 「象村申欽의 書畫評論의 「玄」 美學的志向性에 關する 考察」

37-62)

• 임채우, 嶺南동해비에 나타난 도가적 세계관의 문제 : 동해송과 퇴조비의 성격을 중심으로, 63-97

(임·채우 「陟州東海碑에 現れた 道家的 世界觀의 問題 : 東海頌과 退潮碑의 性格을 中心に」 63-97)

• 김윤경,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전개와 변용 : 동학 증산교를 중심으로, 99-123

(김·윤경 「朝鮮後期의 民間道敎의 展開と 變容 : 東學 甌山敎을 中心に」 99-123)

• 조민환, 圓佛敎의 宗敎的 理念과 書藝의 相關關係 : 圓佛敎宗法師의 서예 인식을 중심으로, 125-148

(조·민환 「圓佛敎의 宗敎的 理念と 書藝의 相關關係 : 圓佛敎宗法師의 書道認識을 中心に」 125-148)

• 김성환, 曙宇 全秉薰의 생애와 저술에 대한 종합적 연구 (2) : 중국 망명기 (1908~1927) 의 역정, 149-183

(김·성환 「曙宇 全秉薰의 生涯と 著述에 關する 總合的 研究 (2) : 中國 亡命期 (1908~1927) 의 歷程」 149-183)

• 정우진, 전통의 관점에서 고찰한 포박자 갈홍의 연단술, 191-220

(정·우진 「傳統의 觀點から 考察した 抱朴子 葛洪의 煉丹術」 191-220)

• 최재호, 鍾呂 內丹論의 전개, 221-244

(최·재호 「鍾呂 內丹論의 展開」 221-244)

• 정재서, 『周氏冥通記』 試論 : 『道藏』의 문학 상상력 연구 1, 245-270

(정·재서 「『周氏冥通記』 試論 : 『道藏』의 文學想像力 研究 1」 245-270)

■ 40号 (2014年 5月)

• 김현수, 莊子哲學의 “小知不及大知” 와 無用之大用, 9-35

- (킴·히ونس 「莊子哲學의 「小知不及大知」と無用之大用」 9-35)
- 강성인, 『淮南子』의 음양오행 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 37-74  
(칸·손인 『『淮南子』의 陰陽五行思想と命理學の關連性の考察」 37-74)
  - 윤찬원, 明清時代功過格들에 나타난 도교윤리, 75-129  
(윤·찬원 「明清時代の功過格に現れた道教倫理」 75-129)
  - 강민경, 허난설현의 유선문학 (遊仙文學) 에 나타난 시간 이미지 고찰, 131-156  
(칸·민기온 「許蘭雪軒の遊仙文學に現れた時間イメージ考察」 131-156)
  - 김일권, 조선 후기 關聖敎의 敬信修行論, 157-186  
(킴·일권 「朝鮮後期の關聖敎の敬信修行論」 157-186)
  - 정우진, 『동의보감』의 이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의학과 도교양생론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187-220  
(정·우진 「『東醫寶鑑』의 理論的特性に關する研究: 漢方醫學と道教養生論の緊張關係を中心に」 187-220)
  - 민영현, 한국민족종교사상의 선(仙) 개념과 그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연구, 219-256  
(민·영현 「韓國民族宗教思想の仙概念とその哲學的人間學に關する研究」 219-256)
  - 김성환, 曙宇 全秉薰의 생애와 저술에 대한 종합적 연구 (3): 중국 망명기 (1908~1927) 의 저술, 257-290  
(킴·성환 「曙宇 全秉薰の生涯と著述に對する總合的研究 (3): 中國亡命期 (1908~1927) の著述」 257-290)
  - 이근철, 『精神哲學通編』의 內丹思想, 291-324  
(이·근철 「『精神哲學通編』の內丹思想」 291-324)
- 41号 (2014年 11月)
- 이봉호, 봉우 단학에서 ‘씨알’ 의 의미와 그것을 회복하는 수련법, 9-30  
(이·봉호 「鳳宇丹學における「種粒」の意味とそれを回復する修練法」 9-30)
  - 임채우, 계룡산 감사 계곡 一中圖의 仙道的 해석 문제: 王侯와 神仙, 그 이상과 현실의 거리, 31-66  
(임·채우 「鷄龍山甲寺溪谷一中圖の仙道的解釋問題: 王侯と神仙、その理想と現實の距離」 31-66)
  - 나우권, 청산 (靑山) 선사 고경민 (高庚民) 의 생애와 사상: 天人合一에 이르는 양생법, 67-94

(ナ・ウグオン「青山仙師 高庚民の生涯と思想：天人合一に至る養生法」  
67-94)

・안동준, 河南 鄭瑋院의 仙道思想, 95-126

(アン・ドンジュン「河南 鄭瑋院の仙道思想」95-126)

・이유라, 張良說話의 韓國에서의 受容, 127-148

(イ・ユラ「張良說話の韓國における受容」127-148)

・정우진, 도가의 '숨' : 전한 이전시기 호흡술에 관한 연구, 149-174

(チョン·우진「道家の「息」: 前漢以前の呼吸術に関する研究」149-174)

・이권, 『老子』의 '유약승강강(柔弱勝剛強)'에 대한 고찰, 175-195

(イ·グオン「『老子』の「柔弱勝剛強」に對する考察」175-195)

·정재서, 갈홍(葛洪), 도인인가? 문인인가? : 『抱朴子』의 문학성 탐구,  
197-218

(チョン·젠티「葛洪、道人か? 文人か?: 『抱朴子』의文學性探求」  
197-218)

·조민환, 『抱朴子』(外篇)에 나타난 葛洪의 '隱居求志'的隱逸觀, 219-246

(チョ·민ファン「『抱朴子』(外篇)に現れた葛洪の「隱居求志」的隱逸觀」  
219-246)

·이근철, 『參同契』의 乾坤坎離를 중심으로 본 煉丹術의 원리, 247-280

(イ·겐쵸「『參同契』의 乾坤坎離を中心として見た煉丹術の原理」  
247-280)

·빈동철, 최고신의 再現으로서의 원시천존: 그 연원과 본모습을 중심으로,  
281-302

(빈·돈쵸「最高神の再現としての原始天尊: その淵源と素顔を中心  
に」281-302)

·최수빈, 도교에서 바라보는 저세상: 신선(神仙)과 사자(死者)들의 세  
계에 반영된 도교적 세계관과 구원, 303-350

(첸·스빈「道敎から眺めるあの世: 神仙と死者たちの世界に反映され  
た道敎的世界觀と救援」303-350)

#### ■ 42号 (2015年5月)

·박정용, 한국도교 교단성립의 실패와 그 원인: 철학부재와 샤머니즘의 흡  
수를 중심으로, 9-36

(박·조운「韓國道敎敎團成立の失敗とその原因: 哲學の不在とシャ  
マニズムの吸収を中心に」9-36)

·최일범, 조선성리학에서 양생(養生)과 수양(修養): 퇴계와 율곡을 중

심으로, 37-64

(チェ・イルボム「朝鮮性理學における養生と修養：退溪と栗谷を中心に」  
37-64)

• 김경수, 郭店 出土文獻에 나타난 ‘天人之分’의 思想, 65-93

(キム・ギョンス「郭店出土文獻に現れた「天人之分」の思想」65-93)

• 김현수, 장자철학의 物化와 큰 깨어남, 95-117

(キム・ヒョンス「莊子哲學の物化と大いなる悟り」95-117)

• 정우진, 동양과학의 논리 : 감응의 유형에 관한 연구, 119-140

(チョン・ウジン「東洋科學の論理：感應の類型に関する研究」119-140)

• 이석명, 성현영 『道德經開題序決義疏』의 道佛융합적 수양론과 一中無爲 :  
‘以佛解老’의 해석방식을 중심으로, 141-169

(イ・ソク미ョン「成玄英『道德經開題序決義疏』の道佛融合的修養論と一  
中無爲：「以佛解老」の解釋方式を中心に」141-169)

• 나우권, 불교의 도교 비판과 도교의 응답 : 『笑道論』과 『老子義疏』에 나  
타난 老子觀을 중심으로, 171-215

(ナ・ウگون「佛敎の道敎批判と道敎の應答：『笑道論』と『老子義疏』に  
現れた老子觀を中心に」171-215)

• 이여명, 라이히 오르가즘론과 방중양생학의 비교, 217-252

(イ・요미ョン「라이히의 오르가즘論と房中養生學の比較」217-252)

#### ■ 43号 (2015年 11月)

• 이규상, 개인과 집단 : 인간과 삶에 대한 노자의 시선, 9-31

(イ・ギュ산「個人と集團：人間と生に對する老子の視線」9-31)

• 김경수, 고대 중국에서의 형 (刑) 과 덕 (德), 33-60

(キム・ギョンス「古代中國における刑と德」33-60)

• 이택용, 장자학 (莊子學) 과 공자학 (孔子學) 의 사상적 관련성에 대한 고찰 :  
지명 (知命) 론의 확장 · 심화로서의 안명 (安命) 론, 61-100

(イ・텍요ん「莊子學と孔子學の思想的關連性に對する考察：知命論の拡張・  
深化としての安命論」61-100)

• 최수빈, 도교의 금욕주의 (Asceticism) : 上清派와 全眞敎를 중심으로,  
101-146

(チェ・스빈「道敎の禁欲主義 (Asceticism)：上清派と全眞敎を中心に」  
101-146)

• 정우진, 초기 한의학의 신체관 : 구성과정을 중심으로, 147-179

(チョン・우진「初期漢方醫學の身體觀：構成過程を中心に」147-179)

• 김지현, 도교의 신체론과 의학지식 : 『황정경』과 『대동경』을 중심으로,  
181-226

(김·지효 「道敎의身體論と醫學知識：『黃庭經』と『大同經』を中心に」 181-226)

· 강경구, 劉一明의 내단사상에서의 修養論：『通關文』, 『修真九要』에 나타난 修性を 중심으로, 227-251

(칸·ギョング 「劉一明の内丹思想における修養論：『通關文』, 『修真九要』に現れた修性を中心に」 227-251)

· 이대승, 팽효의 『분장통진의』 연구 (1) '『참동계』 저자 문제 및 텍스트의 유행과 관련하여, 253-291

(이·데스 「彭曉の『分章通眞義』研究 (1)：『參同契』の著者問題及びテキストの流行と關連して」 253-291)

· 윤찬원, 後代 道敎 勸善書에 나타난 윤리觀：『玉歷鈔傳』을 중심으로, 293-325

(윤·찬원 「後代の道敎勸善書に現れた倫理觀：『玉歷鈔傳』を中心に」 293-325)

· 정재서, 중국 시애설화(屍愛說話)의 유형 및 문화적 의미：『수신기(搜神記)』를 중심으로, 327-347

(정·재서 「中國の屍愛說話の類型および文化的意味：『搜神記』を中心に」 327-347)

· 조민환, 中國書·畫·印品論의道家美學的考察：逸品을 중심으로, 349-370

(조·민환 「中國書·畫·印品論の道家美學的考察：逸品を中心に」 349-370)

· 김일권, 주역과 천문의 결합, 패기상수역론 고찰, 371-399

(김·일권 「周易と天文の結合、掛基上數易論の考察」 371-399)

· 김백현, 從 '爲學' 與 '爲道' 來試談 '21世紀新東道西器論', 401-419

(김·백현 「『爲學』と『爲道』から見た『21世紀新東道西器論』」 401-419)

#### ■ 44号 (2016年5月)

· 이중성, 『순언』의 덕론과 그 구현의 문제, 9-38

(이·중성 「『醇言』の徳論とその具現の問題」 9-38)

· 나우권, 孫盛의 『老子』 비판 연구, 39-64

(나·우권 「孫盛の『老子』批判研究」 39-64)

· 김현수, 莊子の '道通爲一'에 근거한 트랜스퍼스널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 : 홀리스틱 세계관에 기반한 ILP, MBSR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65-89

(김·현수 「莊子の『道通爲一』に基づいたトランスパーソナル心理

治癒プログラム開發の可能性：ホリスティック世界觀に基づいた ILP、MBSR との比較を中心に」 65-89)

• 이대승, 도교 금단 전통에서 『주역참동계』의 의미: 『참동계』는 왜 ‘만고 단경왕’이 되었는가, 91-116

(イ・デスン「道教の金丹の傳統における『周易參同契』の意義: 『參同契』はなぜ「万古丹經王」となったのか」 91-116)

• 김철웅, 고려 태조대의道教와醮禮, 117-142

(キム・チョルウン「高麗太祖代の道教と醮禮」 117-142)

• 고남식, 姜甌山の儒佛仙觀과神道사상: 趙鼎山の「无極道」와 관련하여, 143-171

(コ・ナムシク「姜甌山の儒佛仙觀と神道思想: 趙鼎山の「无極道」と關連して」 143-171)

■ 45号 (2016年11月)

• 정재서, 『山海經』내 고대 한국의 역사, 지리 관련 자료 검토, 9-32

(チョン・ジェソ 『『山海經』内の古代韓國の歴史、地理關連資料の検討』 9-32)

•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도가사상, 33-69

(イ・ジョンソン 「燕岩 朴趾源の道家思想」 33-69)

• 유수민,二郎神 楊戩 형상의 서사적 재현 고찰: 明代神魔小説 『西遊記』 『封神演義』 및 디지털 게임 『王者榮耀』를 중심으로, 71-110

(ユ・스민 「二郎神・楊戩形象の叙事的再現考察: 明代神魔小説『西遊記』、『封神演義』、デジタルゲーム『王者榮耀』を中心に」 71-110)

• 정우진, 상청과 연단술 연구, 111-139

(チョン・우진 「上清派煉丹術研究」 111-139)

• 박중혁, 『莊子』 「德充符」 '畸人' 寓言의意味, 141-167

(박・중혁 「『莊子』 「德充符」 「畸人」 寓言의意味」 141-167)

• 이채권, 王弼의本體論: 體用論과 관련해서, 169-200

(イ・ジェグォン 「王弼の本體論: 體用論と關連して」 169-200)

• 조민환, 疲勞社會와 동양의隱逸思想, 201-227

(조・민환 「疲勞社會と東洋の隱逸思想」 201-227)

■ 46号 (2017年5月)

• 최수빈, 老子 神格化와神話化에 대한一考察, 9-60

(츠크・스빈 「老子의神格化와神話化에對する一考察」 9-60)

• 나우린, 현학에서 증현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노자』 주석을 중심으로, 61-96

(ナ・ウグオン「玄學から重玄學へ行く飛び石：『老子』注釋を中心に」 61-96)

・ 신성열, 『노자』와 미술치료, 그리고 치유적 활용, 97-124

(シン・ソンヨル「『老子』と美術治療、そして治癒的活用」 97-124)

・ 강경구, 『抱朴子』의 부록을 통해본 도교사상 연구, 125-146

(カン・ギョング「『抱朴子』の符籙から見た道教思想の研究」 125-146)

・ 이근철, '玄牝'에 관한內丹的考察, 147-172

(イ・겐철「『玄牝』に関する內丹的考察」 147-172)

・ 조민환, 中國書論에 나타난 奇에 관한 연구: '奇'에 대한老莊哲學적 인식을 중심으로, 173-196

(チョ・민환「中國書論に現れた奇に関する研究:「奇」に對する老莊哲學的認識を中心に」 173-196)

・ 이봉호, 『勸善書』의 음률(陰律)과 그 종교성: 도교의 계율을 윤리로 볼 수 있는가?, 197-234

(イ・봉호「『勸善書』の陰律とその宗教性: 道教の戒律を倫理と見ることができるか?」 197-234)

・ 김면수, 진단(陳搏)과 서자평(徐子平)의 사상적 연관성 고찰, 235-264

(김・민수「陳搏と徐子平の思想的關連性の考察」 235-264)

・ 이진경, 정조의 성리학적 이념과 황로정치적 모색, 265-314

(イ・진경「正祖の性理學的理念と黃老政治的模索」 265-314)

・ 黃勇, 高麗齋醮研究, 315-350

(黃勇「高麗齋醮研究」 315-350)

#### ■ 47号 (2017年 11月)

・ 김현수, 老子哲學의 전체성 회복으로서養生의 이해와 분기, 9-32

(김・현수「老子哲學の全體性回復としての養生の理解と分岐」 9-32)

・ 임채우, 도가는 과학을 반대하는가?: 『장자』 기심(機心) 장의 중언(重言) 화법과 인공지능 시대의 의미, 33-66

(임・채우「道家は科學に反對するの?:『莊子』機心章の重言話法と人工知能時代の意味」 33-66)

・ 장병한, 僧肇撰 『注維摩詰經』 『弟子品』에 대한 연구: 승조의老莊思想의 攝用 및 小乘 批判과 大乘 讚揚論을 중심으로, 67-104

(チャン・병한「僧肇撰『注維摩詰經』『弟子品』に對する研究: 僧肇の老莊思想の攝用、および小乘批判と大乘讚揚論を中心に」 67-104)

・ 윤찬원, 道敎勸善書의 후대에의 영향과 그 의의, 105-138

- (윤·찬우온 「道敎勸善書の後代への影響とその意義」 105-138)
- 강민경, 도교 문학에 나타난 생태 여성주의, 139-166
- (칸·민기온 「道敎文學に現れた生態女性主義」 139-166)
- 이종성, 박세당의 노자관에 나타난 유가와 도가의 윤리적 회통과 갈등의 양상, 167-200
- (이·جون손 「朴世堂の老子觀に現れた儒家と道家の倫理的會通と葛藤の様相」 167-200)
- 정재서, 조선 시대의 『산해경 (山海經)』 수용 약론 (略論)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201-230
- (쵸·젠히 「朝鮮時代の『山海經』受容略論: 文獻資料を中心として」 201-230)
- 조민환, 劉一明 『象言破疑』 와李東豪 內丹修鍊 체험기록 『百日象言』 의 상관관계 연구, 231-274
- (쵸·민판 「劉一明 『象言破疑』 と李東豪の內丹修鍊體驗記錄 『百日象言』 の相關關係研究」 231-274)
- 김백현, 從神仙思想看東夷文化與韓國文化, 275-298
- (킴·벙기온 「神仙思想から見た東夷文化と韓國文化」 275-298)

■ 48号 (2018年5月)

- 김일권, 조선시대 도교적 생태자연학과 생활산림서류 문헌의 전개, 11-40
- (킴·일گون 「朝鮮時代の道敎的生態自然學と生活山林書類文獻の展開」 11-40)
- 김성환, 동아시아 도교학의 지평과 전병훈, 41-68
- (킴·송판 「東アジア道敎學の地平と全秉薰」 41-68)
- 이봉호, 서명응의 《참동고》, 몸에 세운 세계상 1, 69-102
- (이·봉호 「瑞明應の『參同攷』、身に付けた世界相 1」 69-102)
- 정재상, 잊혀진 척전법의 원리, 103-142
- (쵸·젠히 「忘れられた擲錢法の原理」 103-142)
- 최수빈, 神觀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본 중세 도교 교학의 특성 : 老君, 道君, 元始天尊, 三清 관념을 중심으로, 143-188
- (쵸·스빈 「神觀の形成と變化過程を通して見た中世道敎敎學の特性: 老君、道君、元始天尊、三清觀念を中心に」 143-188)
- 이석명, 蘇轍의 《老子解》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 189-220
- (이·석명 「蘇轍の『老子解』に現れた「以儒解老」の解釋とその政治哲學的意味」 189-220)
- 장정훈, 李珣 《醇言》對《老子》的「刪削」與「轉化」析論, 221-268

(チャン・ジョンフン「李珣《醇言》對《老子》的「刪削」與「轉化」析論」  
221-268)

■ 49号 (2018年 11月)

• 나우권, 홍석주의 『訂老』에 대한 새로운 연구 (1):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  
마 도서관 판본에 근거하여, 9-48

(ナ・ウグオン「洪奭周の『訂老』に對する新たな研究 (1): 大阪府立中之  
島圖書館版本に基づいて」9-48)

• 오일훈, 「莊子序」眞僞問題와郭象의 『莊子』編輯에 관한 고찰, 49-88

(オ・イルフン「『莊子序』眞僞問題と郭象の『莊子』編輯に關する考察」  
49-88)

• 徐大源, 道敎와墨學, 89-126

(ソ・デウオン「道敎と墨學」89-126)

• 조민환, '狂'字의 용례 및 '狂者精神'에 관한 연구, 127-152

(チョ・ミンファン「『狂』字の用例および『狂者精神』に關する研究」  
127-152)

• 고남식, 崔水雲과姜甌山의道家的要素比較, 153-182

(コ・ナムシク「崔水雲と姜甌山の道家的要素の比較」153-182)

• 김정은, 朝鮮後期 <瑤池宴圖>의成立과流行, 183-210

(キム・ジョン운「朝鮮後期<瑤池宴圖>の成立と流行」183-210)

• 강민경, 동아시아 인어의 이미지와 서사를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과 역할, 211-242

(칸・민깡쥘「東アジアの人魚のイメージと叙事を通じた文化コンテ  
ンツとしての可能性と役割」211-242)

• 李悠羅, 明代 艷情小説에 대한再認識: 『金瓶梅』를 중심으로, 243-266

(イ・유라「明代の艷情小説に對する再認識: 『金瓶梅』を中心に」243-  
266)

• 박종훈, 『道敎文化研究』所載文學關聯論文考察, 267-296

(박・종훈「『道敎文化研究』所載文學關聯論文の考察」267-296)

■ 50号 (2019年 5月)

• 이석명, 吳澄의道德眞經注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경향과 그 철학적  
특징, 9-42

(イ・ソク미ョン「吳澄の道德眞經注に現われた『以儒解老』の解釋傾向と  
その哲學的特徴」9-42)

• 최수빈, 천서(天書) 인가 인서(人書) 인가: 도교 경전의 특수성과 대중  
화 문제에 대한 소고, 43-88

(チュ・スピン「天書なのか人書なのか：道教經典の特殊性と大衆化問題に對する小考」43-88)

・임채우, 17세기 조선 도교의 탈중화의 이념적 전환: 양란(兩亂) 이후 유교 중화주의 세계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89-122

(イム・チュウ「17世紀朝鮮道教の脱中華の理念的轉換：兩亂以後の儒教の中華主義世界觀の變化を中心に」89-122)

・문현선, 중국 비한족(非漢族) 신화에 나타난 세계 창조와 그 원리: 자연과 인간의 교응 관계를 중심으로, 123-156

(ムン・ヒョンソン「中國非漢族神話に現れた世界創造とその原理：自然と人間との交應關係を中心に」123-156)

・조인철,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의 비교고찰: 건립배경과 자연환경의 풍수적 특성을 중심으로, 157-196

(チョ・인철「韓國の紹修書院と中國の白鹿洞書院の比較考察：建立の背景と自然環境の風水的特性を中心に」157-196)

#### ■ 51号 (2019年 11月)

・정재서, 중국신화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동아시아 문화적 위상: 『산해경(山海經)』과 한국문화』 집필 보고를 겸하여

(チョン・ジェソ「中國神話の相互主觀性と東アジア文化的位相：『山海經と韓國文化』執筆報告を兼ねて」9-34)

・조민환, '狂言'에 담긴老莊의狂者精神에 관한 연구, 35-64

(チョ・민환「『狂言』に込められた老莊の狂者精神の研究」35-64)

・김일권, 조선후기 도교 권선서의 삼제군 신격과 명청대 국가의례 전개 고찰: 19세기 도교언해서『과화존신』과『삼성훈경』을 중심으로, 65-108

(キム・일권「朝鮮後期の道教勸善書の三帝君の神格と明清代の國家儀禮の展開に關する考察」65-108)

・안동준, 『해동전도록』소재「丹書口訣」의 내단 사상, 109-144

(안・동준「『海東傳道錄』所載「丹書口訣」の内丹思想」109-144)

・강민경, 연암 박지원의 소설에 나타난老莊思想고찰, 145-176

(カン・민경「燕巖·朴趾源の小説に現れた老莊思想の考察」145-176)

・김수연, 19세기 후반『과화존신』언해의 표현 특성과 의미, 177-208

(キム・수연「19世紀後半『過化存神』譯解の表現特性と意味」177-208)

#### ■ 52号 (2020年 05月)

·이종성, 광말약의 장자철학 해석의 변천과정과 비판적 장자관에 대한 반론, 9-44

(イ・ジョンソン「郭沫若の莊子哲學解釋の變遷過程と批判的莊子觀に對する反論」9-44)

·성시훈, 무위자연으로 향하는 전쟁관: 『老子』 31 장의 본문비판을 중심으로, 45-74

(ソン・シフン「無爲自然へ向かう戦争觀:『老子』31章の本文批判を中心に」45-74)

·김지현, 조신(寵神) 숭배와 도교: 세 갈래의 흐름, 75-132

(キム・ジヒョン「寵神崇拜と道教:三つの流れ」75-132)

·이진용, 최남선(崔南善)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과 중국 사상: 중국 신화와 철학의 사유를 중심으로, 133-160

(イ・ジンヨン「崔南善「不咸文化論」と中國思想:中國神話と哲學の思惟を中心に」133-160)

·김순섭,倪瓚의 隱逸 행위와 逸의 회화 미학 연구, 161-190

(キム・スンソプ「倪瓚の隱逸行爲と逸の繪畫美學研究」161-190)

·김정은, 朝鮮 後期 <瑤池宴圖> 의 西王母 상징과 그 의미: 생명관을 중심으로, 191-218

(キム・ジョンウン「朝鮮後期<瑤池宴圖>の西王母の象徴とその意味:生命觀を中心に」191-218)

·이수동, 명리학 격국용신론의 근원적 고찰, 219-250

(イ・スドン「命理學格局用神論の根源的考察」219-250)

#### ■ 53号 (2020年 11月)

·나우권, 빈동철, 성시훈, 광점 편장순으로 해석한 노자 (1): 갑본 제 1 간 ~ 제 10 간의 視素保樸을 중심으로, 9-44

(ナ・ウグオン、ピン・ドンチョル、ソン・시フン「郭店の編章順で解釋した老子(1):甲本第1簡~第10簡の視素保樸を中心に」9-44)

·이종성, 모성의 힘: 노자의 어머니 리더십, 45-80

(イ・ジョンソン「母性の力:老子の母のリーダーシップ」45-80)

·이석명, 유학자薛惠의 노자 수용과 변호에 관한 고찰: 『老子集解』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81-112

(イ・ソクミョン「儒學者薛惠の老子受容と辯護に関する考察:『老子集解』に現われた「以儒解老」の性格に對する分析を中心に」81-112)

·김학목, 『장자집해내편보정』 <제물론> 에서 천뢰의 의미, 113-140

(キム・ハクモク「『莊子集解内篇補正』「齊物論」における天雷の意味」113-140)

- 曹玟煥, 韓國道敎史의靑詞에 나타난 絶對者認識, 141-174  
(チョ・ミンファン「韓國道敎史の靑詞に現れた絶對者認識」141-174)
- 김윤경,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도교관 : 「도장총설」을 중심으로, 175-198  
(김ム・윤ギョン「『五洲衍文長箋散稿』의道敎觀:「道藏總說」を中心に」175-198)
- 유수민, 『봉신연의 (封神演義)』 문중 (聞仲) 서사의 의미 지향 및 그 문화적 함의 : 도교문화 및 한국 뇌신 (雷神) 형상과 관련하여, 199-232  
(ユ・スミン「『封神演義』의聞仲叙事の意味志向およびその文化的な意味含意: 道敎文化及び韓國雷神の形状と關連して」199-232)
- 이봉호, 노자의 ‘소국과민’ 과 ‘허생의 섬’ : 노자의 ‘無名’ 과 관련하여, 233-266  
(イ・ボンホ「老子の「小國寡民」と「許生の島」: 老子の「無名」と關連して」233-266)
- 김일권, 19세기 도교 언해서 『조군영적지』 구성과 조왕신의 도교신격 고찰, 267-318  
(김ム・イルグォン「19世紀の道敎諺解書『竈君靈蹟誌』의構成と竈王神の道敎神格考察」267-318)
- 채윤미, 한글단편소설과의 비교를 통한 한글장편소설의 도교 형상 연구 : 선약, 도사, 도관을 중심으로, 319-354  
(チェ・윤ミ「ハングル短編小説との比較によるハングル長編小説の道敎形状研究: 仙藥、道士、道觀を中心に」319-354)
- 조인철, 고전상법 (古典相法) 상의 음양오행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마의상법 (麻衣相法)』 과 『유장상법 (柳莊相法)』 을 중심으로, 355-392  
(チョ・인철「古典相法上の陰陽五行論の適用に關する研究: 『麻衣相法』と『柳莊相法』を中心に」355-392)

■ 54号 (2021年5月)

- 강충구, 전염병 치료로서 도교 부적 : 청미파의 『道法會元』을 중심으로, 9-46  
(カン・チュング「傳染病治療としての道敎の符籙: 淸微派の『道法會元』を中心として」9-46)
- 엄지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의 삶의 질 : 노년학 이론에 대한 도교적 이해를 중심으로, 47-72  
(ヨム・ジヘ「パンデミック時代を生きる老人の生の質: 老年學理論に對する道敎的理解を中心に」47-72)
- 정단비, 한비자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본성론의 간극과 통합 : 순자와 노

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73-102

(チョン・ダンビ「韓非子における統治者と被統治者の本性論の間隙と統合：荀子と老子の影響を中心に」73-102)

· 오일훈, 「齊物論」의 '明' 해석을 통해 본 郭象의 是非觀, 103-144

(オ・イルフン「『齊物論』の「明」解釋を通して見た郭象の是非觀」103-144)

· 김성환, 조선 단학과외 강증산의 신계통치사상 연구 : 진인통신眞人統神에서 천지공사天地公事로, 145-170

(キム・ソンファン「朝鮮丹學派と姜甌山の神界統治思想の研究：眞人統神から天地公事へ」145-170)

· 고남식, 강증산(姜甌山)의 문학과 주술성의 양상, 171-206

(コ・ナムシク「姜甌山の文學と呪術性の様相」171-206)

#### ■ 55号 (2021年11月)

· 김경원, 나우권, 조선의 역병 연구 (1) : 허준의 『신찬벽운방』을 중심으로, 9-44

(キム・ギョンウォン, 나·우곤「朝鮮の疫病研究(1) : 許浚の『新纂辟瘟方』を中心に」9-44)

· 오일훈, 聖人可學과 玄學의 聖人觀 : 아즈마 주지(吾妻重二)의 성인가학 연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45-84

(オ・イルフン「聖人可學と玄學の聖人觀 : 吾妻重二の聖人可學研究に對する批判を中心に」45-84)

· 유수민, 명대 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에 표현된 신선·도교문화, 85-122

(ユ・스민「明代小説『封神演義』に表現された神仙・道教文化」85-122)

· 김용휘, 동학의 주문과 영부로 본 양생과 치병, 123-156

(キム・ヨン피「東學の呪文と靈符からみた養生と治病」123-156)

· 김일권, 장서각 소장본 『태상감응편』 언해서의 판본 비교와 권선서의 선복(善福)인과 윤리사상 고찰, 157-220

(キム・イルگون「藏書閣所藏本「太上感應篇」諺解書の版本比較と勸善書の善福因果倫理思想の考察」157-220)

· 김해인, 마니산 참성단 도교의례 음식의 역사적 맥락과 형태, 221-254

(キム・헤인「摩尼山塹城壇の道教儀禮料理の歴史的な流れと形態」221-254)

· 이수동, 명리학 육친론의 근원적 고찰, 255-288

(イ・스돈「命理學六親論の根源的考察」255-288)